

교육부, 27일부터 ‘제20회 인문주간’ 행사

29기관 참여… 260개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20회 인문주간’ 행사를 열고, 전국 29개 인문학 관련 기관과 함께 2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인문주간은 인문학 대중화와 연구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대표 행사다. 올해는 ‘다시, 잇다: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를 주제로, 디지털화된 사회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람과 사람, 지역과 문화를 연결하는 인문학의 역할을 조명한다.

특히 올해는 도시화·산업화로 사라져 가는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에 주목

한다.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전북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의 ‘인문학으로 만나는 무주 자연생태 이야기’ 행사에서는 시화전과 지역 특산물 요리 체험, 덕유산 어사길 탐방 등이 진행된다. 제주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은 ‘탐라에서 제주까지 동네의 인문학’을 주제로 조선시대 제주목사들의 자취를 따라 걷는 프로그램과 ‘영등굿의 울림, 제주 바당의 신화와 삶’ 행사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인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및 ‘기초학문자료센터 누리집’에 탑재된 행사 안내서(가이드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25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조정

‘The 경기패스’ 통해 도민 부담 최소화

경기도가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인상한다. 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

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2025년 7월부터 월 61회 이상이용금액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인천시, 27일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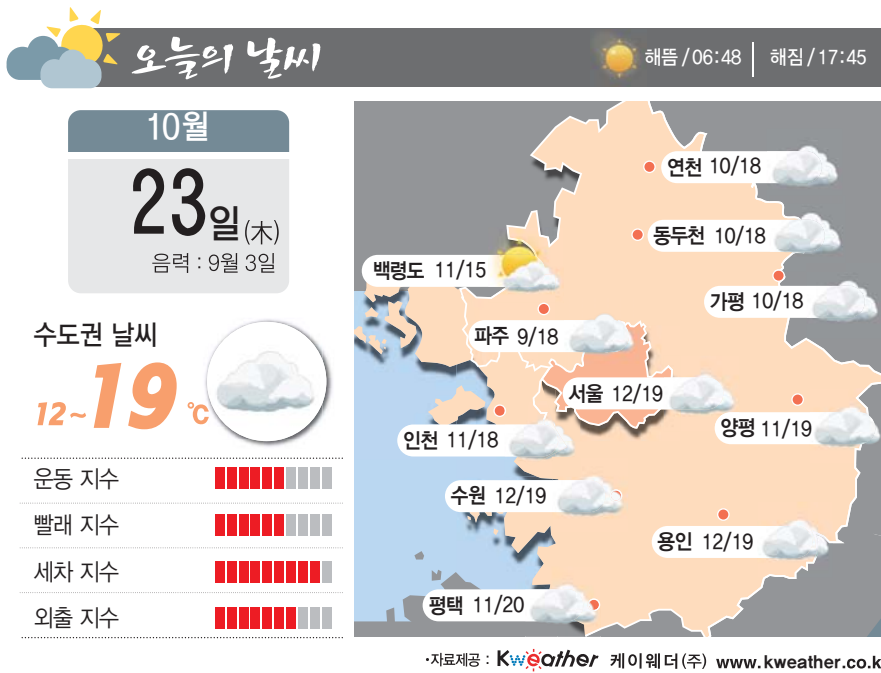
인천이 세계 한인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은 글로벌 협력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잇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인천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경제행사

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협력’을 주제로 통상위원회,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취업설명회,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서울시-서울교통공사, ‘러너지원공간’ 조성

“지하철에서 러닝 준비하세요”

지하철 내 탈의실 등 마련
별도 요금 없이 인증 후 이용
맞춤형 러닝 프로그램 운영

러닝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 내 탈의실·물품 보관·파우더룸 등이 갖춰진 ‘러너지원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광화문역(5호선)과 회현역(4호선), 월드컵경기장역(6호선)에 러닝 편의 및 여가문화 공간 ‘러너지원공간(Runner’s Base)’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러닝을 돕는 지원시설뿐 아니라 모닝 러닝, 장거리 러닝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러너지원공간’은 러너들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내에 조성됐으며 남녀 사용 공간을 구분해 탈의실, 보관함, 파우더룸 등 운동 전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장소로 구성했다.

또 헤어밴드·양말·무릎보호대·샤워티슈·파스·마사지 오일 등 실제 러너들의 의견을 반영, 운동 전후 필요한 물품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러닝용품 자동판매기’도 설치됐다.

네이버 QR 또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출입할 수 있으며, 별도 이용 요금은 없



월드컵경기장역 내 러너지원공간 모습

/서울시

다. 개인 물품보관함은 서울교통공사 ‘포타라커’ 시스템과 연계해 앱(App)으로 손쉽게 잠금과 해제할 수 있다.

각 ‘러너지원 공간’은 시민이 개인 수준과 일상에 맞춰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러닝 프로그램을 주 1~2회 운영한다.

광화문역(5호선)은 직장인을 위한 ‘모닝 러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출근 전 짧은 러닝과 올바른 자세·보강 운동을 익힐 수 있다. 주말 등에는 인왕산·북악산 트레일 러닝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남산으로 오르는 길목에 위치한 회현역(4호선)은 입문자가 러닝에 흥미를 느끼고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산을 배경으로 걷기·가벼운

달리기 등 기초 체력 강화를 시작으로 점차 거리를 늘려가는 단계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월드컵경기장역(6호선)은 상암 월드컵공원을 중심으로 부상없는 달리기를 위한 기초 러닝 스쿨과 경험자를 위한 장거리(15km 이상) 러닝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슬로우 러닝, 패밀리 러닝 등 가족 단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정규 프로그램 외에 분기별로 계절이나 테마·의미가 담긴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겨울에는 러닝 부상 예방과 회복 중심의 실내 프로그램 위주로 시민 참여를 이어간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쪽방촌 일대 주3회 순회진료

매주 월·목·금 14시~17시까지 진행
주민·노숙인 등 진료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가 영양상태,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지난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 주 3회(오후 2시~5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 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 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에도 오는 28일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립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나눔진료봉사단이 영등포쪽방촌을 찾아 쪽방 주민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동진학교 기공식 개최

동부권 최초 특수학교… 2027년 개교

서울 동부권 최초의 특수학교인 (가칭)동진학교가 13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건립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서 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을 열고, 지적장애 학생

을 위한 교육공간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동진학교는 2012년 설립계획이 처음 추진된 이후 9차례 후보지 검토와 부지 조정 끝에 2019년 현 부지로 확정됐다. 그동안 동대문·중랑구 등 서울 동부권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학생들

이 타 지역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착공으로 학생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학교는 부지면적 1만2201㎡, 연면적 1만6910㎡ 규모로 건립되며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총 18학급, 111명 규모로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美·인도 무역합의 임박…관세 50%→15~16% 인하
▲ 日다카이치, 방위상에 ‘방위력 강화’ 지시…방일 앞둔 트럼프 의식

▲ 러 “미, ‘핵군축 조약 1년 연장’에 무응답…국제정세 위협해져”
▲ ‘세계로 뻗는 K-축산’ 韓-키르기스스탄 인공수정사 공동 양성



▲ 캐나다 총리 “내주 미국과 무역합의 가능하지만 상황 지켜보아야”
▲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日다카이치 총리 “한미일 협력 대응”
/사진 뉴시스